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용인짱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7 년 5월 30일(화요일) / 장 소 : 중강당 앞							
참석자 명단	학번	20170000	이름	김00	학번	20170000	이름	손00
	학번	20170000	이름	김00	학번	20170000	이름	윤00
	학번	20170000	이름	김00	학번	20170000	이름	노00
	학번	20170000	이름	박00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저성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일의 변화, 인구 마이너스, 기술 빅뱅, 로봇화와 인공지능의 시대. 이러한 4가지의 변화에 따라 개인이 바뀌어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해 토의해보고 개인과 4차 산업혁명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어보았다.</p> <p>1.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미래에 가질 직업에 대해서 개인이 무슨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소양을 가져야 하는가?</p> <p>윤00 : 4차 산업시대에 프로파일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차원적 사고능력과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고려하는 능력, 역설적 상황을 관리하고 반대되는 입장 사이의 균형을 잡는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를 연계한 프로파일링에 대해서도 준비해야겠다.</p> <p>김00 : 임상심리사로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환자와의 관계형성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4차 산업시대에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이 요구되고 그러한 직업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메뉴얼화되고 정형화된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특별하고 유연한 사고력이 필요할 것 같다.</p> <p>노00 : 제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고, 사람들의 노력과 투자로 점차 적용되어가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세계의 흐름 중 하나이지만, 이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차세대 산업혁명인 만큼, 우리와 같은 대학생들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한다. 또한 자신이 지향하고 있던 분야가 제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며 없어질 직업인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고 알아보아야한다.</p> <p>박00 : 현재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이지만, 글로벌 시대에 맞게 영어 능력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것이 디지털 분야이므로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흐름에 맞추어 트렌드를 읽고 그것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 치중되</p>							

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상황이나 현상을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00 :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미래에는 단순한 노동을 하는 직업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암기를 하는 공부를 했다면 미래에는 그런 수동적인 공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풍부한 상상력을 갖추고 그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양한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할 텐데 인간의 정체성과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윤리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손00 : 제 4차 산업 혁명을 앞두고 미래에 가질 직업에 있어서 우선 우리는 이 변화를 인지해야 한다. 디지털 혁명을 바탕으로 한 제 4차 산업이기에 더욱 더 빠른 속도, 더 방대한 양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고 이 변화를 대처할 준비를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변화에 나는, 우리는 어떤 직업이 생기고 사라지는지 생기는 직업에서 내 적성에 맞는, 내가 흥미 있어 하는 분야는 무엇인지 아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사실은 수용하는 자세, 변화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 시각 등의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00 : 제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미리 준비하여 변화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 많은 역할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미래에 원하는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그 직업의 발전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항상 주시하며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져야한다. 없어질 직업에 집중하기 보다는 유지되거나 새롭게 생겨날 역할에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이제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해야 하며 앞으로 변할 사회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것에 대해 항상 공부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2. 북클럽 활동을 하면서 느낀점

윤00 : 북클럽 활동을 하면서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제4차 산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3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고도화된 기술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발 빠르게 그것에 맞춰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야겠다고 느꼈다.

김00 : 신문 사설이나 TV로 어렴풋이 접했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다. 이를 통해 전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의 미래의 직업에 대해 전략을 계획하고 수립할 수 있었다.

노00 : 평소 의료분야로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의료분야가 적응해 나아가는 것을 뉴스에서 접했다. 북클럽을 통해 의료분야의 없어질 직업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를 사용하여 발전해 나갈 방향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박00 :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최근 들어 다양한 곳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는 도중 북클럽 활동을 통해 보다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김00 : 지금까지는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북클럽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변화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정말 재미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맞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은 알 수 있었다. 평소에는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쉬웠었다. 이번 북클럽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아주 뜻 깊은 활동이었다.

손00 : 북클럽을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제 4차 산업 혁명에 대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나에게서 낯선 이 주제가 우리에게서 이제는 알고 있어야 할 정도로 큰 이슈란 것을 느껴 놀랐다. 북클럽을 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 알게 되고 깊게 공부해 보면서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 아니 변화라는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를 계기로 이에 대해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 의미 있던 활동이었다.

김00 : '4차 산업혁명'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관심을 가지 않았었다. 나에게서 너무 어렵고 상관없는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북클럽 활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왜 그렇게 4차 산업혁명에 열광하는 만큼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나 또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데 첫 디딤돌을 밟게 해주었다. 이번 북클럽을 계기로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사진 (7명 전원 참석)

2017 년 5월 30일

참가자대표 : 박00